

2016. 10. 11.[화]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세계일보

2016년 10월 11일 (화)
128면 전국

가을정취 느끼며 평화누리길 걸어볼까

15일 염하강철책길 걷기 행사
사진전 등 즐길거리도 풍성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경기도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김포 평화누리길 1코스 '염하강철책길'을 걷는 평화누리길 걷기행사가 15일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가족 및 일반인, 동호회 등

1000여명이 참가한다.

주요 코스를 보면 김포 대명항에서 출발해 손돌묘와 부래도, 덕포진둘레길을 지나 다시 대명항으로 돌아오는 8km의 순환형 단일코스다.

참가자들은 '대명항 함상공원'에 집결해 조선시대 외세침입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덕포진',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역사가 서린 '손돌묘', 한강에서

떠내려왔다고 알려진 작은 섬 '부래도'를 거쳐 가을 추수가 한창인 들판을 걷게 된다.

경기도는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DMZ 야외사진 전시회, 평화공원 비둘기풍선 날리기,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염하강철책길에서 보내는 편지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17.1 X 6.3 cm

기호일보

2016년 10월 11일 (화)
08면 수도권

가을빛 물든 DMZ 염하강가 거닐며 '통일의 꿈' 되새겨요

15일 '김포 평화누리길 걷기' 대명항·부래도 등 8km 순환 참가비 환경캠페인 기금 적립

경기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김포 평화누리길 1코스 '염하강철책길'을 걷는 올해 마지막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염하강철책길'에 걸린 가을풍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와 김포시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며 가족 및 일반인, 동호회 등 1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코스는 대명항에서 출발해 손돌묘와 부래도, 덕포진둘레길을 지나 다시 대명항으로 돌아오는 8km의 순환형 단일 코스로 구성

됐다. 참가자들은 대명항 함상공원에서 집결, 조선시대 외세침입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덕포진',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역사가 서린 손돌묘, 한강에서 떠내려왔다고 알려진 작은 섬 부래도를 거쳐 가을 추수가 한창인 들판을 걷게 된다.

또한 '평화누리길과 사람'이라

는 주제로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철책선에 건 'DMZ 야외 사진 전시회', '평화 기념 비둘기풍선 날리기',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등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특히 참가자들은 길을 때마다 참가비의 일부를 DMZ 일원 환경보존 캠페인 기금으로 적립하

게 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완보증과 간식, 동산스틱을 지급한다. 학생의 경우 사진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화누리길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를 참고하거나 경기관광공사(☎031-956-8310)로 문의하면 안

내받을 수 있다.

박정란 도균행발전기화실장은 "염하강철책길은 가을바다를 걸으며 평화와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라며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좋은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부근 기자 bgrin@khoilbo.co.kr
신기호 기자 shh@khoilbo.co.kr

29.4 X 7.5 cm

염하강 철책길 따라 걸으며 가을풍경 진수 느껴보세요

김포, 15일 '평화누리길 행사'
대명항서 출발... 8km 순환코스
영화배우 이광기씨도 참여

올해 마지막 '평화누리길 걷기행사'가 오는 15일 김포 평화누리길에서 열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염하강철책길에 걸린 가을풍경'을 주제로 진행된다.

대명항에서 출발해 손돌묘와 부래도, 덕포진둘레길을 지나 다시 대명항으로 돌아오는 8km의 순환형 단일코스로 운

영된다.

참가자들은 '대명항 함상공원'에서 집결해, 조선시대 외세침입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덕포진',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역사가 서린 '손돌묘', 한강에서 떠내려왔다고 알려진 작은 섬 '부래도'를 거쳐 가을 추수가 한창인 들판을 걷게 된다.

이어서 단풍이 우거진 염하강철책길을 걷다보면 가을풍경의 진면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대명항은 가을 대하와 전어가 한창이라 행사 종료 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도락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또 올해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

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화배우 이광기씨와 박원휘 학생도 참여해 참가자들과 함께 걸을 예정이다. 출발 전 행사장에 마련된 포토월에서 홍보대사와 기념촬영도 할 수 있다.

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염하강철책길은 가을바다를 걸으며 평화와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라며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좋은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누리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화누리길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를 참고하거나 경기관광공사(031-956-8310)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성기자